시선

사설

후진적인 등록금 논의 구조 재정문제 더 악화시켜

연말을 맞아 바쁘게 돌아가고 있는 캠퍼스의 풍경에서 그 누구도 언급하지 않고 있는 이슈가 있다. 바로 2015학년도 등록금 문제다. 물론 이유는 있다. 내년도를 '담당'할 차기 총학생회가 꾸려지기 전까지 학생들은 등록금 문제에 대해 통일된 목소리를 내지 못할 것이다. 학교 측이 홀로 등록금 이슈를 꺼내기도 난감하다. 자연스럽게, 등록금 논의는 차기 총학생회가 인수인계를 마친 내년 1월 말에서야 서서히 시작될 것이고, 정식 등록금 심의위원회는 2월 말이 다 되어서야 첫 테이블을 가질 테다. 학교 측은 2~3% 인상된 등록금을 가고지 할 것이고, 학생들은 이에 대해 '논의 없는 일방적 결정'이라며 반발할 것이다. 그리고 지난하고 기다란 '논의'의 과정을 거쳐서, 2015학년도의 등록금은 이르면 1학기 말, 늦으면 내년 말 쯤에나 확정되게 될 것이다. 항상 그래왔듯이.

가장 큰 문제는, 문제가 문제라는 것을 모르는 것이다. 지금부터 뻔히 예견되는 2015학년도 등록금 논의 레이스의 이와 같은 여정은 한 두 해 반복되어온 패턴이 아니다.

우리학교의 재정구조상 수익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등록금은 가장 비중이 높고 중요한 요소다. 때문에 명년도 등록금이 확정되지 않은 채로 차기년도를 맞이한다는 것은 곧 한 해 예산규모가 미정인 상태로 한 해 살림을 시작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한 해의 예산이 상시 추경 상태라는 것은 바꿔 말하면 조직운영과 업무진행을 사전에 미리 계획하고 진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예산규모에 맞는 업무조정이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없기 때문이다. 즉, 한 해 내내 학내 대부분의 조직들이 업무상 혼란상황을 맞이한다는 것이다.

당해년도 등록금이 당해년도 중반 혹은 말에 이르러서야 확정되곤 하는 현재의 프로세스는 대단히 잘못돼 있다. 그리고 이것이 매년 반복된다는 것은 협의 관계자 전원이 무책임한 매너리즘에 빠져있다고 밖에는 볼 수 없는 현상이다.

등록금 논의시기를 앞당기는 것이 현행 시스템 구조상 어려운 부분이라면 그 시스템 구조를 개선하면 될 일이다. 가령 차기년도 등록금이 확정될 때까지는 당해년도 총학생회가 책임을 지고 논의 당사자로 나선다든지, 혹은 차기년도 등록금 관련논의를 그 전년도 7~8월 달에 일찌감치 시작한다든지 하는 약간의 조정만으로도 이 문제는 큰 개선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대표는 선거일정을, 대학본부는 회계일정 등을 이유로 내세우며 항상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주지하다시피, 현재 우리학교가 맞닥뜨린 가장 시급한 문제는 단연 '재정'이다. 현재 긴축되어 운영되고 있는 한 해 예산규모는 재정문제의 효과적인 대안이 아닌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다. 이 미봉책일 뿐인 한 해 예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등록금 관련 논의 프로세스조차 이토록 후진적일진대, 하물며 '재정문제' 전반에 대해 구성원 대표자들은 구성원들의 신뢰를 바란다고 감히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신뢰를 바란다'는 말이 입에 붙은 학교 측과 총학생회, 그리고 총학생회 선거 입후보자들이 신중하게 생각해봐야할 문제다.

만평이 있는 취재수첩

이주의 주제 - 총학생회 후보 등록 논란

반성 없는 사과는 반복된다

이승연 기자
〈leesy0317@khu.ac.kr〉

올해 처음 국제캠퍼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선관위)와 선거 과정을 지켜보면서 의혹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후보 등록 과정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건을 보면 누구나 중선관위의 운영과정이 비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 것이다.

지난 13일 총학생회 선거에 출마한 'Klass Up' 선본의 1,200여 명 추천인 명부가 무효 처리되는 일이 발생했고, 16일에는 '친 KHU' 선본의 후보등록이 처리되지 않는 사태가 발생했다. 두 사건 모두 중선관위가 자신들의 과실을 인정하며 일단락됐다.

이러한 과정을 지켜보며 의문이 들었던 점은 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 23조 3항인 '등록마감시간 이후에는 일체의 등록서류를 발급하지 않으며, 출입할 수 없다.(단, 등록마감시간 이전에 등록 장소에 입실한 경우 필요한 서류-인쇄용 포스터 파일 제외를 2시간 이내에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에 대해 중선관위가 긴급회의와 6차 회의에서 다른 식으로 결론 내렸기 때문이다.

16일 자정의 긴급회의 회의록을 보면 "선거시행세칙 5장 23조(등록절차)에 의거하여 등록 마감시간 이후 출입할 수 없으므로 미비된 서류를 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후보 등록을 할 수 없다"는 의견이 제기됐고 긴급회의에서 다수가 이 의견에 동의해 '친 KHU' 선본의 총학생회 후보등록을 취소했다.

하지만 18일 중선관위 6차 회의록을 보면 중선관위는 '선관위 대부분의 의견은 21시 이후 사람은 출입할 수 없지만 서류는 전달가능하다. 또한 2항의 2시간 이내는 21시부터 23시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국제캠 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이 모호하다는 점을 떠나서 두 회의에서 정반대의 결론을 내린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또 중선관위의 과실로 후보등록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을 보며 처음 발표했던 사과문은 요청에 따른 형식적인 것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 결국 매일 오락가락을 반복하는 중선관위 결정과 선본들의 사과를 접하는 학생들에게는 '진흙탕 싸움'으로 비춰질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이런 인식은 근거없는 소문만 양산한다. 정책대결 대신에 흑색선전에 선거가 매몰된다.

4년 만에 이뤄진 경선이다. 무엇보다 학생들의 이목을 집중시켜 침체된 학생사회를 활발하게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 기회를 책임지는 중선관위는 선거 과정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끌 의무가 있다. 선거운동기간이 끝나면 투표기간이 시작된다. 남은 기간 동안의 중선관위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상황이다. 매끄럽지 못한 선거과정은 구성원에게 불신만 남긴다. 모두가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모습을 토대로 더 이상의 사과가 없길 기대한다.

대학주보를 '이용하지' 말아주세요

세시봉

권오은 〈편집장〉

교지 고황 제88호가 지난 17일 발간됐다. 한 페이지씩 읽어 나가다보니, '대학주보'라는 단어가 눈에 띄었다. 지난 9월에 발간된 취업률에 대한 이야기였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 즉 '학교가 어떤 지원을 해줘야 하는가'에 머무르는 논의가 아니라, '취업을 어렵게 하는 문제의 근원(일자리의 질적 저하)을 파헤칠 수 있는 지적인 작업들을 교육기관으로서 경희대가 임해야할 과제로 삼는 것'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에 고개를 끄덕였다.

캠퍼스 곳곳에서는 선거가 본격화됐다. 선거 유인물들을 읽는 일이 나름의 쉬는 시간 보내는 요령이다. 이 유인물 안에서도 대학주보에서 제작한 그래프나 표가 왕왕 눈에 띈다. 출처를 표기하기도 하고, 혹은 건너뛰기도 하지만 신경 쓰지 않는다. 아무도 몰라주겠지만, 혼자 느끼는 '뿌듯함'에 괜스레 옆자리에 앉은 친구에게 자랑하고 싶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생색내려는 것이 아니다. 대학주보가 지향하는 가치가 경희대라는 작은 사회의 '공기(公器)'임을 생각해 본다면, 대학주보에 대해 이야기하고 또 사용하는데 별다른 허락 같은 것이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특히 편집장으로서 대학주보가 누군가에게 '인용' 되고, 또 '사용'된다는 것은 정말 기쁜 일이고, 더 좋은 신문이 되는 자양분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대학주보를 왜곡해 이용하려는 시도들'은 단호히 거부한다. 대학주보는 오로지 우리학교의 공기(公器)로 남아야 한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대학주보가 그 목적에 맞게 사용됐을 때의 이야기다. 기사의 맥락은 사라지고, 단편만 남은 채 이용되는 순간을 목도할 때마다 답답함을 넘어 걱정할 수밖에 없다. 진실을 전하는 그릇으로 쓰임받길 원해왔던 만큼, 억지 주장에 이용된 한 줄이 진실을 호도하는 수단으로 변질될 것을 걱정할 수밖에 없다. 특히 갈등이 복잡하게 엮인 학내 곳곳의 사안을 취재할 때마다 대학주보가 둘 중 하나의 '편'으로 읽히고 다뤄지는 경우에는 무기력해지기도 한다.

그래서 강조하고 싶다. 학생기자들은 경희대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 근거해 매일 취재하고 또 보도하고 있다. 목표에 비해 부족한 능력은 끊임없이 보완하고, 또 담금질해 나가야한다고 믿는다. 다만 이런 기자들의 노력만으로는 그 목표가 달성될 수 없다고도 믿는다. 대학주보의 주인인 구성원이 대학주보를 적확하게 사용하려는 노력 역시 요청되기 때문이다. 이런 노력과는 다른, 곧 '대학주보를 왜곡해 이용하려는 시도들'은 단호히 거부한다. 대학주보는 기자들만의 것이어서도 안 되고, 누군가의 사적인 목적을 위한 도구가 돼서도 안 된다. 오로지 우리학교의 공기로 남아야 하며, 그 방향 아래에서만 쓰여야 한다. 펜이 칼보다 강하다는 말은, 다시 말해 펜이 칼보다 위험할 수 있다는 것임을 구성원 역시 함께 고민해주길 고대한다.

'인구론' 인문계 졸업생 90% 논다 우리학교에서도?

미디어 여론동향 2014.11.3 ~ 11.9

여론동향팀 khunews@khu.ac.kr

온라인 커뮤니티 '쿠플라자'에는 '4-1학기 마쳐가는 문과생인데'(2014.11.19)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높은 조회수를 기록했다. 글쓴이는 방학 때 기업체의 인턴을 지원하려고 했지만 스펙이 부족해서 쓰지 못했다며, 이번 방학에 어학성적을 만들기 위한 공부를 해야겠다는 글을 남겼다. 이에 대해 취업이 힘들지만 노력한다면 결실을 맺을것이라는 응원의 댓글이 달렸다.

강동경희대학교병원은 17일 '청소년 기흉클리닉'을 개설했다고 밝혔다.(강동경희대병원, '청소년 기흉클리닉' 개설/경향신문, 2014.11.18) 기흉 클리닉은 신속한 환자치료를 위해 흉부외과와 호흡기내과, 응급의학과 간의 기흉 진료 협진 체계를 갖췄다. 또 지역 내 학교와 기흉 질환에 대한 비상연락망을 유지할 계획이다. 강동경희대병원 흉부외과 김대현 교수는 "기흉을 가볍게 생각하기 쉽지만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치료가 까다롭고 치료기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다"며 "이번에 개설된 클리닉을 통해 청소년 기흉진료를 보다 체계적으로 제공하게 됐다"고 말했다.

경희의료원 정형외과 배대경 교수가 지난 16일 열린 '제3회 대한운동계줄기세포재생의학회' 정기총회에서 신임회장으로 선임됐다.(운동계줄기세포재생의학회 회장에 배대경 교수/청년의사, 2014.11.18) 임기는 1년이다. 배 교수는 슬관절질환과 인공관절술의 권위자로 대한정형외과학회장, 대한슬관절학회장, 아시아태평양슬관절학회장, 아시아태평양정형학회 이사, 제4차 아시아태평양 슬관절학회 조직위원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지난해에는 국내 의학 분야 최고 권위의 학술단체인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정회원으로 선출되기도 했다.

우리학교 약학대학 육창수 명예교수가 중국 호남성이 주는 우정상(Friendship Award)을 수상했다.(육창수 경희대 명예교수 중국 호남성 우정상 수상/약업신문/2014.11.20) 중국의 경제, 문화, 과학 분야에 공로가 있는 외국인을 선발해 시상하는 우정상은 호남성에서 주관하는 외국인 대상의 상 중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이다. 육 교수는 Hunan Tiansheng Biotechnology사에서 2010년부터 수석기술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 회사 연구팀은 칡과 관련한 관련 기초이론 연구를 실시했으며, 혈당을 낮추고 심장박동을 강화하며 염증을 억제하는 등 34종의 연구성과를 보였다.

박희수 동문이 제12대 상지대부속한방병원장으로 임명됐다.(박희수 상지대 부속한방병원장/강원도민일보, 2014.11.20) 박 원장은 우리학교 한의대를 졸업했으며 원광대 한의학 석·박사를 수료했다. 또한 대한한의사협회 서울시 대의원총회의장과 대한한의학회 이사, 대한경락진단학회장, 상지대부속한방병원 제7대 병원장 등을 역임했다. 취임식은 20일 상지대부속한방병원 강당에서 열린다.

알림

대학주보 페이스북 페이지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뉴스와 정보는 물론, 취재과정도 독자 여러분과 공유합니다.

www.facebook.com/ khunews

교훈 학원의 민주화 | 사상의 민주화 | 생활의 민주화 경희대학교

대학주보 1955년 5월 12일 창간(주간)

발행·편집인 조인원 | 주간 김민전 | 편집장 권오은 | 제작/인쇄 중앙일보미디어디자인(주)
구독료 1년 1만원 | 구독 02-961-0093~4 | 주소정정 02-441-7317(미래기획)
인터넷 대학주보 http://media.khu.ac.kr | 이메일 khunews@khu.ac.kr

서울캠퍼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회기동) /Tel 02-961-0093~5
국제캠퍼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서천동) /Tel 031-201-3230~2, FAX 031-204-8121